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김도영이 2014시즌 서건창(왼쪽)이 작성한 135득점을 넘어 최다득점 기록을 세우는 등 KIA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앞세워 기록의 시즌을 보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서건창 “최다 득점 신기록 세운 김도영 대단” 김도영 “128경기에 135득점, 서건창 선배에 감탄”



10년 전 서건창과 10년 후 김도영, 대단한 선수들이 만들어낸 KIA 타이거즈 기록의 시즌이다. KIA는 올 시즌 투타의 밸런스,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7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이뤘다. 기록도 풍성하게 쏟아진 시즌이기도 하다. 특히 김도영의 기록 행진도 놀라웠다. 김도영은 지난 23일에는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새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날 첫 타석에서부터 담장을 넘기면서 136번째

득점에 성공한 김도영은 2014년 서건창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서건창은 넥센 시절이었던 2014년 KBO 사상 첫 200안타를 넘기는 등 201안타, 135득점을 장식하면서 MVP 트로피까지 차지했다. 올해 고향팀에 돌아와 후배가 자신의 기록을 깨는 순간을 직접 지켜본 서건창은 “뿌듯하다. 도영이 올해 처음 봤는데 실력 있는 선수가 잘해서 기록을 깬 거니까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대단하다”며 “앞으로 어떤 역사를 세워나갈지 기대된다. 앞으로 자기 기록을 계속 자기가 깰 것 같다”고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보냈다. 새 기록을 만든 김도영은 “사실 기록을 세웠지만 인정 못 하는 느낌이다. 그때는 128경기 시절이다. 어떻게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서건창의 기록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2014시즌에는 9개 구단 체제로 팀당 128경기씩 소화했다. 10구단 체제인 지금은 144경기가 진행된다. 서건창은 2014시즌 126경기를 뛰었다. 김도영은 136번째 경기에서 최다득점 기록을 만들었다. 김도영의 겸손한 소감에 서건창은 오히려 후배를 지켜주었다. 서건창은 “아직 도영이는 게임이 남았고 몇 개를 할지 모른다. 도영이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 또한 도영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며 “정말 멋있는 것 같다. 다음 사람의 도움이 아닌 첫 타석에서 자기 힘으로 기록을 해버렸다. 그런 능력은 도영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도영이가 가지고 있다”고 박수를 보냈다. 흐뭇한 마음으로 후배의 질주를 지켜보고 있는 서건창에게는 잊지 못할 시즌이다. 서건창은 “즐겁게 야구하고 있다. 우리 팀이 잘하고 있는 게 각자 위치에서 정말 모든 선수가 베스트

로 하고 있어서다.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고 있어서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며 “서로 도와가면서 응원해 주면서 했던 그런 모습이 성적에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리그 정상에 섰던 서건창과 새로운 별이 함께 조명을 받은 올 시즌. KIA는 ‘만루홈런의 사나이’ 이범호 감독과 ‘살아있는 전설’ 최형우, 양현중, 나성범 등 경쟁한 선수들이 모여 놀라운 2024시즌을 만들었다. 서건창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좋은 선배 그늘 아래서 야구한다는 게 좋았다. 좋은 선배들 밑에서 보고 배우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며 “올해 어린 선수들도 형우 형도 있고, 주장도 있고, 현종이 형도 있고 좋은 선배들 밑에서 시즌 치러왔는데 행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잘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없이 야구만 했던 때가 그림자는 한데 추억은 가슴에 묻고, 중요한 경기 남았으니까 내 할

일을 하겠다. 우승하고 무덤덤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감정이 올라온 선수도 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가을잔치’를 기대했다. 올 시즌 KBO의 ‘슈퍼스타’로 등극한 김도영도 시즌을 보내면서 선배들의 힘을 크게 느꼈다. 김도영은 “득점과 타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다 득점 기록은 영광스럽다. 형우 선배님 최다 타점 작성할 때 홈런으로 기록하셨다. 그런 것 생각하면서 신기록을 홈런으로 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신기했다”며 “최근에 한국시리즈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예전 경기를 찾아봤는데 형우 선배님도 대단하시고, 이범호 감독님의 만루 홈런도 봤다. 같은 팀이라는 게 가슴 웅장해진다”고 말했다. 또 “배테랑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다. 시리즈 때 배테랑 선배님들 없으면 막막한 느낌이 들 것 같다. 대단한 선배들과 같이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V11’ 기운 받아랏!



김기태 전 감독이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롯데와의 경기 시구자로 나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김기태 전 감독 시구 참여...주역들과 감독의 재회 “KS 우승 기원”

2017년 ‘V11’ 주역들이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모였다. 김기태 전 KIA 감독이 25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2017년 사령탑으로 우승을 지휘했던 그는 이날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시구자로 모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기태 감독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7년 전 기억들이 소환됐다. 올 시즌 KIA 지휘봉을 들고 정규시즌 우승을 이끈 이범호 감독은 팀의 주축 선수로 뜨거운 타선의 중심이었다.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앞선 시리즈 부진을 털어내는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범호 감독은 “김기태 감독님 시절 때 최상의 멤버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야구관도 감독님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수를 위한 감독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해왔다”며 “감독님이 많은 기 주고 가시면 좋겠다”고 김기태 감독의 방문을 반겼다. 2017년 선수단을 이끌었던 ‘주장’ 김주찬은 롯데 타격 코치로 이날을 함께 했다. 김주찬 코치는 훈련이 끝난 뒤 김기태 감독을 찾아 반가운 포옹을 나눴다. 2017시즌에 20승을 달성했고, 한국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책임졌던 양현중은 이날 경기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양현중은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 김기태 감독과 진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중계석에서도 김기태 감독과 특별한 추억이 있는 이대형 위원이 자리했다.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던 김기태 감독은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도 화제를 모았

다. ‘러브 투게더 시프트’도 김기태 감독이 연출한 화제의 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다. 2015시즌 5-5 동점이었다던 9회초에 나온 장면으로 고의 사구를 지시한 김기태 감독은 투수 심동섭의 폭투를 우려해 3루수 이범호를 포수 뒤에 배치하는 ‘4루수’ 작전을 썼다. 허를 찌르는 승리를 위한 간절한 전략이었지만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에 자리해야 하는 만큼 실제 시프트가 가동되지는 못했다. 이범호 감독은 “갑자기 부르셔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었다. 왜 부르실까 했는데, 동섭이 폭투를 우려해서 뒤로 가 있으라고 하셨다”며 “되나 싶으면서도 진짜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을 했다. 고의사구 때 뒤로 공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어려워하는 투수가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3루 주자가 나왔다. 그때 정말 폭투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면서 이범호 감독의 이야기에 동감한 이대형은 “그때 3루에서 들어가려고 움직이니까 감독님이 의식을 하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비수를 뒤로 빼셨다. 수비수가 라인 밖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게 잊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웃었다. 한편 김기태 전 감독은 “좋은 추억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당시 마지막까지 힘들게 우승을 했다. 대패하고 마지막에 이겨냈을 때 선수들이 대단했다.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잘 넘어갔다”며 “큰 영광이다. 우승을 한 것 보니까 팬분들도 다 좋아하시더라. 축하한다. 이범호 감독을 비롯해 모든 선수들, 프런트, 팬들의 성원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한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많은 응원을 보내겠다”고 시구자로 나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 “화끈한 세리머니 연구 중”

### 한국 4인방 프레지던츠컵 출전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 선수들이 미국과 겨루는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 개막을 앞두고 함께 연습 라운드를 치른 김시우, 안병훈, 임성재, 그리고 김주형 등 한국 선수 4명이 화끈한 승리 세리머니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5일 김시우는 PGA 투어 어드컴과 인터뷰에서 “올해는 흥 경기이기 때문에 팬들을 열광시킬 세리머니를 연구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022년 호주 대회 때 김주형과 김시우 등은 화끈한 승리 세리머니로 팀원은 물론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김시우는 이번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4명 가운데 가장 출전 경험이 많다. “처음 프레지던츠컵 참가했을 때는 한국 선수나 혼자였다”는 김시우는 “지난 대회부터 4명의 한국 선수가 함께 하고 있어서 더 특별하다. 우리끼리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있어서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한국 선수들끼리 연습 라운드를 하면서 그런에서는 가벼운 내기도 하면서 즐거웠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특히 팀플레이가 중요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 같다”고 전날 치른 합동 연습 라운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연습하면서 포션이나 포볼 플레이 연습을 했다. 팀끼리 호흡을 맞추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안병훈은 “4명의 한국 선수가 있다. 그만큼 한국 골프 선수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프레지던츠컵 기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겠다”고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골프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5년 만에 프레지던츠컵에 나서는 안병훈은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더 잘치고, 더 잘 퍼트하고 있다. 경기의 모든 면에서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